

## 여성장애인의 취업 및 임금수준 결정요인 분석

양 정 빈  
(남서울대학교)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장벽으로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인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본 연구는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여성장애인의 취업 및 임금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활동을 독려하고 노동시장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들을 제시하고자 이루어졌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 8,000명 중 노동 가능한 연령인 15세 이상 60세 미만 1,571명의 여성장애인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취업 및 임금수준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학력,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기간, 가구주 유무,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유무가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수준과 관련해서는 학력, 결혼상태, 장애기간, 가구주 유무, 기초생활수급자 유무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여성장애인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마련, 장애관련 특성들을 민감하게 고려한 직종개발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강화, 기초생활수급자인 여성장애인의 안정적 취업을 위한 노력, 그리고 취업의지를 높일 수 있는 동기 강화 프로그램 실행 등과 같이 여성장애인의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주요용어: 여성장애인, 취업, 임금수준

본 논문은 2014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원자료는 김호진·최종철·양수정이 수행한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수집된 것임을 밝힌다.

■ 투고일: 2015.4.20    ■ 수정일: 2015.5.27    ■ 게재확정일: 2015.6.18

## I. 서론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수는 251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연평균 11.2%의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여성 등록 장애인 수는 2000년 28만 명에서 2012년 105만 명으로 약 4배 이상 증가하였고, 전체 장애인 중에서 여성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00년 30.1%에서 2012년 41.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3). 선천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질병과 사고 등으로 장애 인구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생활안정과 재활을 위한 각종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부각되어 왔다.

통계청(2012)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으로 빈곤문제를 꼽았고, 조사 응답자의 41.3%가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을 선택했다. 또한 전체 기초생활수급가구 대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가구의 비율은 2002년 15.1%에서 2012년 21.1%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장애인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수당을 비롯한 복지재정의 확보와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경제적 빈곤 문제는 심화되고 있지만 이들이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실례로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및 실업률은 각각 62.3%, 60.4%, 3.0%로 나타난 반면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3%, 고용률은 36.0%, 실업률은 5.9%로 전체 인구에 비해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는 절반 수준이며, 실업률은 두 배 이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인의 취업여건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드러내는 결과다. 그 중에서도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상태는 훨씬 더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경제활동참여율의 경우 남성장애인은 49.9%, 여성장애인은 22.1%였으며, 고용률은 각각 46.9%, 20.9%로 조사되어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남성장애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한 여성장애인의 직종은 임시직과 일용직에 대부분 분포되어 있었으며 임금 수준 역시 낮게 나타나 남성 장애인보다 훨씬 더 취약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김정아, 2013).

이미 여성장애인이 경제활동과 고용영역에서 겪는 차별의 심각성은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여성장애인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문제와 비장애인 중심의 구조화된 사회 속에서 '장애의 문제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권선진, 1996; 오혜경, 1998; 문혜숙, 2003). 다시 말하자면, 여성장애인은 양자의 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이중적 차별(double discrimination)로 인해 비장애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에 비해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으며(강동욱, 2003; 최복천, 2011), 교육, 건강, 가족, 사회참여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당하고 있다(Atkinson & Davoudi, 2000; 홍석준·성정현, 2003; 윤성호, 2005; 오혜경, 2006; 이원호, 2006; 김안나, 2007). 또한 장애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 임신, 출산, 육아와 같은 여성 고유의 과업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가중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미·심인선, 2007; 유명화·엄미선, 2007). 특히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여성이나 남성장애인에 비해 노동시장 진입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취업한 이후에도 임금차별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유동철, 2000; 김정아 외, 2013). 험난한 취업의 문을 통과한 이후에도 낮은 임금을 받음으로써 안정적인 직업유지와 소득보장을 이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는 결국 여성장애인 복지의 궁극적 목표인 자립과 사회통합을 역행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 역시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한편 지금까지 장애인의 취업이나 임금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대상자의 성별을 분리하기 보다는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주된 연구주제는 취업 결정요인 분석(민경희, 1993; 이선우, 1997; 류정진·나운환, 2006; 백은령 외, 2007; 강필수·이정주, 2010), 직업훈련을 통한 고용서비스 증대 방안(유동철, 2000; 이병화, 2006), 장애인의 임금 결정요인(권유경, 1998; 유동철, 2000b; 이정호, 2002; 장현, 2005; 조상미 외, 2010)을 보거나, 임금차별의 요인 규명(어수봉, 1996; 유동철, 2000; 강동욱, 2004) 등이 있다. 반면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은 주로 직업 활동 및 직무만족(이은미, 2006; 이은미·백은령, 2006; 신은경·곽지영, 2008)이나 노동시장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차별(이재서·백은령, 2008; 이은미, 2008; 오혜경, 2010)을 다루고 있어, 구체적으로 취업과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데 다소 한계를 갖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취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인 취업관련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에 초점을 둔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즉, 여성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취업 이후 보다 안정된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기

위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취업 및 임금수준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를 고취시키고 임금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고찰

### 1. 여성장애인의 취업 및 임금수준

『2013년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2.1%, 고용률은 20.9%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인 49.9%, 고용률 46.9%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인 51.2%, 고용률인 49.7%와 비교해 볼 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호진 외, 2013).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가 최초로 도입된 2010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4%인데 반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4.6%로 여성장애인은 여전히 남성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으며, 성인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인 50.5%에 비해서도 역시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2010년 남성장애인, 성인여성과의 격차가 각각 23.8%, 25.9%였다면, 2013년은 27.8%, 29.1%로 나타나 3년 전에 비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즉, 남성장애인과 성인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늘어난 반면, 여성장애인은 3년 동안 2.5%가 떨어졌음을 보여준다. 이는 여성장애인의 취업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노동시장 내 여성장애인의 배제를 여실히 드러내는 대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취업한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도 비정규직 비율이 77.8%로, 남성장애인의 54.1%보다 높아 대체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3).

장애인의 임금수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Johnson과 Lambrinos(1985)는 장애인과 일반인의 임금을 비교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남성장애인의 임금은 일반인의 84% 수준이며, 여성장애인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장애인에 비해

여성장애인이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다. Baldwin과 Johnson(1994)은 시간적으로 장애가 뚜렷한 장애인일수록 그렇지 않은 장애인보다 취업가능성과 임금이 더 낮다고 하였으며, 이 후 임금차별이 여성장애인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프로빗 모형을 통해 연구한 결과, 장애여성과 일반여성 사이에 약 30% 정도의 고용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성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성별과 장애로 인해 차별을 경험하는 것은 취업 초기 단계와 직종 이동 과정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O'Hara, 2004).

이러한 임금차별은 잦은 이직을 불러일으키거나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등 장애인의 고용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사회재통합에 이르지 못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 분야의 공공지출 성불평등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석재은 외, 2008)에 따르면 성별에 관계없이 장애인들의 가장 절실한 욕구는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욕구로 규명되었다. 장애인의 경제적 빈곤은 장애로 인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더욱 취약하게 만듦으로써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

많은 연구자들은 여성장애인의 열악한 취업과 임금 현실에 대한 원인으로 낮은 교육수준, 정보 접근성의 제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의 부재 등을 들고 있다. 즉,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 중 가장 심한 분야가 교육으로, 낮은 교육수준은 사회복귀를 가로막는 직접적인 역할로 작용하며(이은미, 2006; 광지영·신은경, 2006; 이재서·백은령, 2008; 배화옥·김유경, 2009), 취업을 위한 준비방법이나 적절한 프로그램,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찾지 못해 지인이나 가족의 도움으로 구직을 시도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이은미, 2006; 박자경, 2007; 황아윤, 2007). 또한 여성장애인이 선호하는 직업의 자리가 부족하고(현호석, 2002; 황아윤, 2007; 광지영, 2010), 육아와 가사부담으로 직업과 가사의 양립이 가능한 구직 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현호석, 2002).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해 보면,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차별 속에서 경제활동과 임금수준에 있어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으며, 이는 경제활동을 통한 자존감 회복, 지역사회 적응, 그리고 사회통합을 막는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여성장애인의 취업 및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 요인

본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검증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인구학적 요인, 장애관련 요인, 가구관련 요인으로 나누어 논의하겠다.

인구학적 요인은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의미하는데, 취업과 임금수준에 미치는 주요 결정요인으로는 연령, 학력, 결혼상태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연령은 취업과 임금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혀 왔는데(Becker, 1971; Spence, 1974; Davis, 1997; 김성희, 2010), 연령이 많을수록 직업훈련, 취업교육 등 경제활동참여를 위한 기술습득기간이 길어지고 그 결과, 취업가능성과 임금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새로운 기술습득과 환경적응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으며, 노동수요 측면에서 보다 젊은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사회분위기로 연령이 높은 여성장애인일수록 취업과 소득에 불리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 기존 연구를 보면 연령 변수는 다양한 결과로 분석되었는데, 연령이 많을수록 취업과 임금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와(김기태 외, 1999; 오혜경, 2002; 전리상, 2006; 오세란, 2008; 정병오, 2010), 오히려 낮은 연령일수록 취업과 소득이 높다는 결과도 있었다(Blackwell et al., 2003; 류정진, 2005; 강동욱, 2006). 또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도 다수 파악되었다(어수봉, 1996; 이선우, 1997; 권유경, 1998; 박수경, 1999; 한국노동연구원, 2003; 백은령, 2007).

다음으로 학력을 들 수 있는데, 교육은 개인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고 고용시장에 필요한 노동능력을 배양시켜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므로, 높은 학력수준을 가질수록 취업의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고 예상할 수 있다. 학력과 취업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물 대다수가 학력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에 진입할 확률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Lewis & Alee, 1992; Melin & Fugal-Meyer, 2003; Butterfield & Ramseur, 2004; 어수봉, 1996; 박성준, 1998; 유동철, 2000; 백은령, 2007; 이준상, 2008). 위의 결과와 정반대의 연구물도 존재하는데,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으며(백은령, 2007; 오세란, 2008; 김성희, 2010), 학력과 취업가능성이 관련이 없다는 결과도 확인되었다(곽지영·신은경, 2006).

여성장애인의 결혼상태 역시 취업 및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기존 연구자들은 기혼일수록 취업확률이 높다고 예상하였는데, 원인으로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과 배우자의 지지 등을 들고 있다(Pfsiffer, 1991; Baldwin & Johnson, 1995; 박성준, 1998; 박수경, 1999; 유동철, 2000; 성효용·김민경, 2003; 이형열, 2007). 반면 결혼을 통해 가사노동은 물론,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할 때 오히려 취업 진입에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는 연구들도 있다(김성희, 2010; 정병오, 2010).

여성장애인의 취업 및 임금수준을 예측하는데 있어 장애관련 요인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의 장애관련 요인으로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발생 기간을 포함시켰다. 장애유형은 취업의 주요인으로 간주되는데, 2011년 장애인 실태 조사에서는 신장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등이 90% 이상의 취업률을 보였고,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서는 지체장애인의 고용률이 44.8%로 가장 높았으며, 정신장애인은 19.9%로 가장 낮았다. 이선우(1997)에 따르면, 지체장애인을 기준으로 청각장애인의 취업가능성은 높은 반면, 정신장애인의 취업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규와 김상희(2003)의 연구에서도 역시 정신장애인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직업재활에 성공하는 확률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장애유형별로 소득차이를 살펴본 연구(어수봉, 1996)에서는 시각, 언어, 지적장애인의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유형별 생산성의 차이가 취업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임금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있다(김성희, 2010).

장애정도 역시 주요 요인으로 들 수 있는데,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김호진 외, 2013)에 의하면 경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6.0%, 고용률은 43.8%인데 반해 중증장애인은 각각 21.5%, 19.2%로 나타나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중증장애인의 실업률은 10.8%로 경증장애인(4.8%)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경증의 장애를 지닌 여성장애인일수록 취업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생산성 저하로 소득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선우, 2001; 전이상, 2002; 류정진·나운환, 2006; 백은령, 2007; 정병오, 2010; 김성희, 2010).

이 외에도 장애발생기간이 포함되는데, 일반적으로 장애기간이 길수록 비경제활동상태보다 경제활동상태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며(박자경, 2007), 이선우(2001)의 연구에서도 장애기간이 취업형태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인의 취업 및 임금수준의 결정요인으로 가구관련 요인을 포함

시켰는데 세부 항목은 가구주 유무, 가구원 수, 기초생활수급자 유무로 구성된다.

가구 내 지위를 나타내는 가구주 유무가 취업에 미치는 주요인으로 선정되었는데, 여성장애인이 가구주인 경우 가장의 역할을 책임지고 수행해야하므로 다른 가구원에 비해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또한 소득에 있어 부양가족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비가구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예측할 수 있다. 실제 조사 결과 가구주인 경우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선우, 2001; 유동철, 2002; 백은령, 2007; 박자경, 2008).

가구원 수 역시 결정요인으로 포함되는데, 이선우(1997)는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생계를 위해 장애인 본인이 취업할 필요성이 줄어드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무임금 가족 노동력이 많기 때문에 자영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는다고 한다. 즉,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취업의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자영업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의 유무 역시 선행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 광지영과 신은경(2006)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정한 취업활동으로 소득 발생 시 사회보장 급여가 감소되므로 취업을 기피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취업한 이후에도 직업을 유지하는데 있어 수급 여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법정 기준 이하가 되어야 하나 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수급액이 줄어들거나 수급자격이 발탁될 수 있기 때문이다(변용찬·이정선, 2005). 이외에도 선행연구에서 기초생활 비수급 상태의 여성장애인들이 취업에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밝혀졌다(정병오, 2010; 김성희,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인구학적 요인, 장애관련 요인, 가구관련 요인들이 여성장애인의 취업 및 임금수준에 어떤 영향력을 갖는지 검증해봄으로써 선행 연구와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원자료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한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로, 2차 자료를 활용한 분석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는 장애인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장애인 정책 대상 집단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고, 장애인의 복지·고용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2010년 최초로 도입되었다. 이 조사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를 판별하고,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별로 나누어 특성을 파악하고 있어, 장애인을 위한 경제 정책의 주요한 통계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본 조사는 2013년 조사 당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15개 법정 장애유형 중 하나 이상의 장애를 지니고 있는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표집 규모는 8,000명이다. 표본추출은 지역, 장애유형, 장애등급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였으며, 추출 읍면동 수를 조절함과 더불어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별로 적절한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이상추출(two phase sampling)을 실시하였다. 원표본 중 70%의 조사율을 달성하고, 컴퓨터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로 실시하여 자료의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최종 조사된 연구대상자는 8,000명이며, 이 중 여성장애인은 3,255명으로 40.7%를 차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15세 이상 60세 미만 1,571명의 여성장애인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2. 변수정의 및 측정

##### 가.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취업유무와 임금수준 두 가지가 사용되었다. 취업유무는 취업과 미취업으로 분류되며, 취업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상태 판별기준을 적용하여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 종사자, 일시휴직자(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 일시휴직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복귀 가능하여야 함)를 기준(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3: 84)으로 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취업은 1, 미취업은 0을 부여하여 더미변수로 사용하였다. 임금수준은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을 사용하며, 연속적 변수로 사용하였다.

## 나.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크게 인구학적 요인, 장애관련 요인, 가구관련 요인 3가지로 구성된다.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연령, 학력, 결혼상태가 포함된다. 연령은 만 나이를 계산하여 연속적 변수로 사용하며, 학력은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으로 나누어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결혼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미혼, 사별, 이혼 등)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장애관련 요인은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발생기간으로 구성되는데, 장애유형은 신체장애, 정신장애, 내부장애, 감각장애로 나뉜다. 신체장애에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안면장애가 포함되며, 정신적 장애에는 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가 포함된다. 내부장애에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간질장애, 장루/요루장애가 포함되며, 감각장애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가 포함된다. 장애정도는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중증으로, 4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경증으로 분류하였다. 경증은 0, 중증은 1을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장애발생기간은 주된 장애가 발생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기간을 계산하여 사용하였으며, 연속변수로 처리하였다.

가족관련 요인으로는 가구주 유무와 가구원 수, 기초생활수급자 유무로 구성된다. 가구주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더미변수화 했으며, 가구원 수는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1, 비수급자인 경우 0으로 더미변수화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와 측정방법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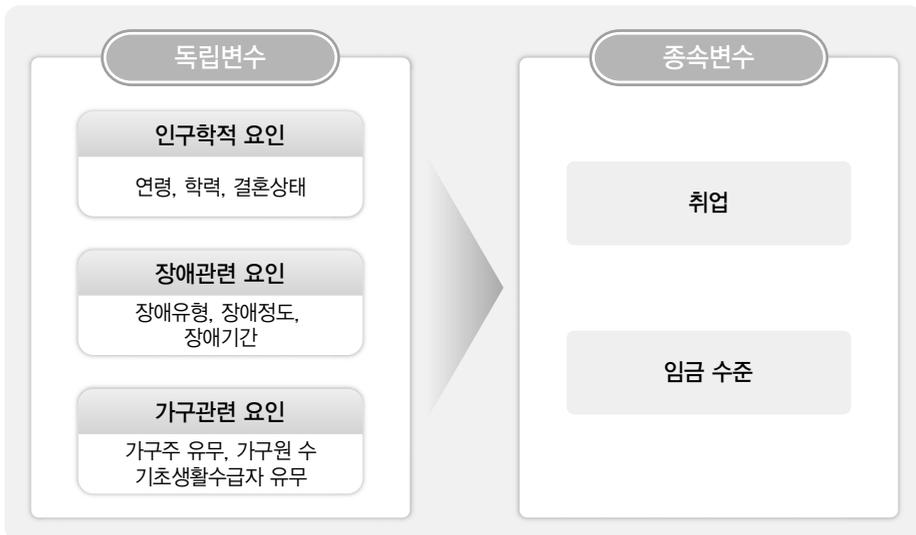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구분	변수명	변수측정	변수속성	
종속변수	취업	취업자 = 1 미취업자 = 0	범주변수	
	임금수준	월평균임금	연속변수	
독립변수	인구학적 요인	연령	만 나이	연속변수
		학력	중졸 이하 = 1 고졸 = 2 대졸 이상 = 3	범주변수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 1 배우자 없음 = 0	범주변수	
장애관련 요인	장애유형	신체장애 = 1 정신장애 = 2 내부장애 = 3 감각장애 = 4	범주변수	
	장애정도	중증 = 1 경증 = 0	범주변수	
	장애기간	장애기간	연속변수	
가구관련 요인	가구주	가구주 = 1 가구주 아님 = 0	범주변수	
	가구원수	총 가구원 수	연속변수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 1 기초생활수급자 아님 = 0	범주변수	

### 3. 통계분석 및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고, 독립변수에 따른 임금수준 분석을 위해 t-test 및 ANOVA 분석을 실행하였다. 여성장애인의 취업여부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임금수준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각각 실시하였다. 본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20.0 프로그램을 활용했으며, 다음의 [그림 1]은 본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연구모형이다.

그림 1. 연구모형도



## IV. 분석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총 1,571명이 응답한 가운데 취업자는 24.1%(378명), 미취업자는 75.9%(1,193명)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의 취업률이 31.9%(74명)로 가장 많았고, 미취업자는 50대가 78.1%(557명)로 가장 많은 가운데, 취업자는 평균 44.22세, 미취업자는 45.14세로 취업자의 연령이 다소 낮게 조사되었다. 학력 분포를 살펴보면, 취업자의 경우 대졸 이상이 43.5%(84명)로 가장 많았고, 고졸은 26.5%(166명), 중졸 이하는 17.0%(128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취업자의 학력은 정반대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는데, 중졸 이하가 83.0%(624명)로 가장 많았고, 대졸 이상은 56.5%(109명)로 가장 낮았다. 배우자가 있는 취업자는 28.8%(215명), 미취업자는 71.2%(531명)이었고, 배우자가 없는 여성장애인 중 취업자는 19.8%(163명), 미취업자는 80.2%(662명)로 각각 나타났다.

장애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장애유형에서 감각장애를 가진 여성장애인의 취업자가 35.8%(136명)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장애는 27.4%(97명), 내부장애는 19.9%(80명), 정신적 장애는 15.0%(65명) 순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자의 경우 정신적 장애인이 85.0%(369명)로 가장 많았고, 감각장애가 64.2%(244명)로 가장 적었다. 취업자의 장애 등급은 6급이 43.5%(87명)로 제일 많았고, 장애가 심한 1급은 12.0%(22명)로 비교적 적었다. 취업자의 장애기간은 평균 20.68개월, 미취업자는 평균 18.07개월로 취업자의 장애기간이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기간이 길수록 경제활동 상태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와 다소 일치하는 결과라고 하겠다(이선우, 2001; 박자경, 2007).

가구관련 요인을 보면, 가구주 중에서 취업자는 21.9%(96명), 미취업자는 78.1%(342명)였고 비가구주 중 취업자는 24.9%(282명), 미취업자는 75.1%(851명)로 각각 조사되었다. 취업자의 가구원 수는 평균 3.16명, 미취업자는 평균 2.81명으로 취업자에 비해 다소 낮았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유무를 보면, 취업자는 비수급자가 32.3%(343명)로 월등히 높았으며, 미취업자는 수급자가 93.1%(474명)로 더 많이 분포하였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구 분		취업	미취업	전체	
계		24.1(378)	75.9(1,193)	100.0(1,571)	
인구학적 요인	연령	20대 이하	23.6(48)	76.4(155)	100.0(203)
		30대	31.9(74)	68.1(158)	100.0(232)
		40대	23.6(100)	76.4(323)	100.0(423)
		50대	21.9(156)	78.1(557)	100.0(713)
		평균(표준편차)	44.22(10.86)	45.14(11.76)	44.92(11.55)
	학력	중졸 이하	17.0(128)	83.0(624)	100.0(752)
		고졸	26.5(166)	73.5(460)	100.0(626)
		대졸 이상	43.5(84)	56.5(109)	100.0(193)
	결혼상태	유배우	28.8(215)	71.2(531)	100.0(746)
		배우자 없음	19.8(163)	80.2(662)	100.0(825)
장애관련 요인	장애유형	신체적장애	27.4(97)	72.6(257)	100.0(354)
		정신적장애	15.0(65)	85.0(369)	100.0(434)
		내부장애	19.9(80)	80.1(323)	100.0(403)
		감각장애	35.8(136)	64.2(244)	100.0(380)
	장애등급	1급	12.0(22)	88.0(161)	100.0(183)
		2급	16.9(79)	83.1(388)	100.0(467)
		3급	21.1(72)	78.9(269)	100.0(341)
		4급	24.4(30)	75.6(93)	100.0(123)
		5급	34.2(88)	65.8(169)	100.0(257)
		6급	43.5(87)	56.5(113)	100.0(200)
장애정도	중증	17.5(173)	82.5(818)	100.0(991)	
	경증	35.3(205)	64.7(375)	100.0(580)	
장애기간 (N=1,224)	3년 미만	77.6(806)	22.4(233)	100.0(1,039)	
	3년 이상	65.9(122)	34.1(63)	100.0(185)	
	평균(표준편차)	20.68(15.42)	18.07(13.42)	18.70(13.97)	
가구관련 요인	가구주 유무	가구주	21.9(96)	78.1(342)	100.0(438)
		비가구주	24.9(282)	75.1(851)	100.0(1,133)
	가구원 수 (N=1,514)	1명	14.2(30)	85.8(182)	100.0(212)
		2명	23.0(91)	77.0(304)	100.0(395)
		3명	24.6(101)	75.4(309)	100.0(410)

구 분		취업	미취업	전체
	4명	30.2(111)	69.8(257)	100.0(368)
	5명 이상	31.8(41)	68.2(88)	100.0(129)
	평균(표준편차)	3.16(1.24)	2.81(1.23)	2.90(1.24)
기초생활 수급자 유무	수급자	6.9(35)	93.1(474)	100.0(509)
	비수급자	32.3(343)	67.7(719)	100.0(1,062)

## 2. 요인별 임금수준 분석

취업한 여성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106.70만원으로 이들의 인구학적 요인, 장애관련 요인, 가구관련 요인에 따른 월 임금 수준 차이의 분석 결과는 다음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인구학적 요인인 연령, 학력, 결혼상태에 따른 취업한 여성장애인의 임금수준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력과 결혼상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학력의 경우 중졸이하와 대졸이상과의 임금차이가 무려 82.17만원으로 큰 격차가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결혼상태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취업자의 소득이 124.54만원으로, 배우자가 없는 응답자의 85.97만원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장애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장애유형에 따른 임금수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나타난 가운데, 내부장애가 143.6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감각장애는 110.20만원, 신체적 장애는 106.66만원, 정신정 장애는 52.65만원으로 장애유형에 따른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장애등급 역시 유의하게 나타난 가운데, 5급이 134.2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3급이 75.15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장애정도의 차이도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는데, 중증 취업자는 평균 90.59만원, 경증 취업자는 평균 119.76만원으로 약 30만원의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가구관련 요인과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유무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57.34만원, 비수급자인 경우 111.91만원으로 비수급자의 임금 수준이 수급자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표 3. 취업한 여성장애인의 임금수준 분석

단위: 만원

구 분		N	월평균 소득	표준편차	t/F	Duncan's test	
계		335	106.70	79.19			
인구학적 요인	연령	20대 이하	46	83.11	58.61	2.352	.
		30대	66	115.56	89.58)		
		40대	88	117.95	79.81		
		50대	135	103.06	78.25		
	학력	중졸 이하(a)	113	78.16	54.12	30.245****	(a)<(b)<(c)
		고졸(b)	144	100.03	63.73		
		대졸 이상(c)	78	160.33	105.87		
	결혼상태	배우자 있음	180	124.54	88.10	4.695****	
		배우자 없음	155	85.97	61.44		
	장애관련 요인	장애유형	신체적장애(a)	89	106.66	86.15	15.372****
정신적장애(b)			55	52.65	37.08		
내부장애(c)			69	143.61	100.04		
감각장애(d)			122	110.20	59.65		
장애등급		1급(a)	21	94.90	59.52	4.350**	(c)·(a)· (b) · (f) <(a)·(b)· (f)· (d) <(b)·(f)· (d)· (e)
		2급(b)	68	103.10	83.71		
		3급(c)	61	75.15	53.02		
		4급(d)	27	118.26	75.22		
		5급(e)	81	134.26	94.46		
		6급(f)	77	105.03	72.07		
장애정도	중증	150	90.59	70.22	3.405**		
	경증	185	119.76	83.71			
장애기간 (N=263)	3년 미만	204	117.93	87.65	1.415	.	
	3년 이상	59	100.59	63.46			
가구관련 요인	가구주 유무	가구주	95	101.45	81.57	0.447	.
		비가구주	240	108.77	78.31		
	가구원 수 (N=331)	1명	30	87.40	48.17	1.657	.
		2명	79	102.48	75.26		
		3명	92	100.52	66.90		
		4명	97	122.38	91.53		
		5명 이상	33	113.61	98.46		
	기초생활 수급자 유무	수급자	32	57.34	38.46	-6.633****	.
		비수급자	303	111.91	80.61		

\*  $p < 0.05$  \*\*  $p < 0.01$  \*\*\*  $p < 0.001$

### 3. 여성장애인의 취업유무 결정요인 분석

다음으로 여성장애인의 취업 결정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chi^2=209.418$ ,  $p<.001$ 로 나타나 분석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정확도는 76.4%, 투입된 변수의 설명력은 23.7%이었다.

여성장애인의 취업유무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학력, 장애유형에서 감각장애, 장애정도, 장애기간, 가구주 유무, 기초생활수급 유무가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구학적 요인에 속하는 학력에서 대졸자에 비해 고졸자와 중졸자의 취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확률이 높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백은령, 2007; 오세란, 2008; 김성희, 2010). 동시에 최근 장애인의 교육수준이 향상되면서 직업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아졌지만 장애인들이 취업하기에는 노동시장의 장벽이 여전히 높고 대부분의 일자리가 비숙련 직종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재확인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 외 연령과 결혼상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관련 요인에서는 감각장애를 가진 여성장애인이 신체적 장애를 가진 여성장애인보다 취업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정도에서는 중증일수록 경증에 비해 취업할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정도를 설명변수로 사용한 연구들(이선우, 2001; 전이상, 2002; 류정진·나운환, 2006; 백은령, 2007; 정병오, 2010; 김성희, 2010)의 대부분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장애기간이 길수록 취업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장애기간을 활용한 선행연구결과(박자경, 2007)와 부합하였다.

가구관련 요인에서는 가구주인 여성장애인의 취업 가능성이 가구원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가구주 여부를 사용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박자경, 2008; 김영미, 2005; 황수경, 2003; 장지연·호정화, 2001; 이선우, 2001).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비수급자에 비해 취업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급여부를 중요한 변수로 꼽았던 선행연구(곽지영·신은경, 2006; 정병오, 2010; 김성희, 2010)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4. 여성장애인의 취업유무 결정요인 분석

구 분		B	S.E	Wald	Exp(b)	
인구학적 요인	연령	-.158	.093	2.855	.854	
	학력	(중졸 이하)				
		고졸	-.987***	.224	19.453	2.684
		대졸 이상	-.459**	.171	7.180	1.583
	결혼상태	(배우자 없음)				
유배우		-.201	.208	.937	.818	
장애관련 요인	장애유형	(신체적장애)				
		정신적장애	-.053	.202	.070	.948
		내부장애	-.345	.270	1.635	.708
	장애정도	(경증)				
		중증	-.616***	.168	13.439	.540
장애기간		.022***	.006	16.211	1.023	
가구관련 요인	가구주 유무	(비가구주)				
		가구주	.813***	.234	12.117	2.255
	가구원 수		.095	.072	1.721	1.100
기초생활 수급자 유무	(비수급자)					
	수급자	-2.108***	.268	61.928	.122	
상수		-.706	.609	1.345	.493	
사례수		1,206				
Chi-square		209.287***				
-2 Log likelihood		1,132.596				
Nagelkerke R <sup>2</sup>		.237				

\* $p < 0.05$  \*\* $p < 0.01$  \*\*\* $p < 0.001$

#### 4. 여성장애인의 임금수준 결정요인 분석

여성장애인의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식 검증에 앞서 회귀분석의 전제조건인 다중공선성을 분석한 결과, 분석평창지수(VIF) 값이 최소 1.053에서 최대 1.981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인구학적 요인에서는 학력과 결혼상태가, 장애관련 요인에서는 장애발생기간이, 가구관련 요인에서는 가구주 유무와 기초생활수급자 유무 등이 임금수준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미혼보다는 배우자가 있을수록 임금수준이 높다고 하겠다. 장애발생기간과 관련해서는 장애발생기간이 짧을수록 임금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구주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에 임금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수급여부를 설명변수로 활용한 선행연구결과들과 일치하고 있다(곽지영·신은경, 2006; 정병오, 2010; 김성희, 2010). 본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인구학적요인의 학력( $\beta=.360$ )이 여성장애인의 임금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결혼상태( $\beta=.230$ ), 가구주 유무( $\beta=.163$ ), 기초생활수급자 유무( $\beta=-.138$ ), 그리고 장애발생기간( $\beta=-.124$ ) 순이었다. 이는 여성장애인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은 학력과 결혼상태로, 인구학적요인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본 모형의 전체 설명력은 24.8%로 나타났다.

표 5. 여성장애인의 임금수준 결정요인 분석

구 분		B	$\beta$	t
인구학적 요인	연령	-.083	-.010	-.136
	학력	40.135	.360	5.817***
	결혼상태	38.714	.230	3.111**
장애관련 요인	장애유형	6.343	.094	1.685
	장애등급	8.668	.051	.846
	장애기간	-.655	-.124	-2.081*
가구관련 요인	가구주 유무	29.438	.163	2.122*
	가구원 수	7.586	.111	1.784
	기초생활수급자 유무	-44.079	-.138	-2.398*
상수		-18.790		-.498
사례수		262		
R <sup>2</sup>		.498		
Adj. R <sup>2</sup>		.248		
F		9.225***		

\* $p<0.05$  \*\* $p<0.01$  \*\*\* $p<0.001$

지금까지 여성장애인의 취업과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학력, 장애유형에서 감각장애인 경우, 장애정도, 장애기간, 가구주 유무, 기초생활수급 유무가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수준과 관련해서는 학력, 결혼상태, 장애기간, 가구주 유무, 기초생활수급자 유무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변수들로 분석되었다.

## V. 결론 및 제언

여성장애인은 삶의 여러 영역에서 비장애여성은 물론 남성장애인에 비해 지속적인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 과거와 달리 여성장애인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시장 안에서 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성별의 구분보다는 장애인 전체에 초점을 두고 있어 여성장애인이 처한 개별적인 상황과 장애특성을 민감하게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이들의 취업과 임금수준을 파악하는데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원자료의 이차분석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취업과 임금수준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파악해보므로써 향후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참여 활성화와 임금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여성장애인의 취업유무 결정요인으로는 학력,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애기간, 가구주 유무, 기초생활수급자 유무로 나타났다. 학력이 낮을수록, 경증일수록, 장애기간이 길수록, 가구주일수록,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취업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임금수준에 미치는 요인으로 학력, 결혼상태, 장애기간, 가구주 유무, 기초생활수급자 유무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장애기간이 짧을수록, 가구주일수록,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닐수록 임금이 높다고 하겠다. 이를 종합하면, 인구학적 요인인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은 유리하나 임금은 적을 가능성이 높으며, 배우자가 있는 여성장애인일수록 임금수준이 높다고 하겠다. 장애 관련 요인에서는 장애정도가 경증일수록 취업가능성이 높았으며, 장애기간이 길수록 취업가능성은 높은 반면 임금수준은 낮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가구관련 요인에서는 가구주일수록,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닐수록 취업가능성과 임금수준이 높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주요 함의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장애인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고등교육보다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과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 결과, 여성장애인의 학력은 취업은 물론 임금수준의 주요 예측 요인이었다. 이미 선행연구에서도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고(오혜경, 2010), 낮은 교육수준은 이들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박자경, 2008). 즉, 여성장애인이 체감하는 차별과 배제 가운데 교육 기회의 제한은 가장 큰 사회적 배제로 설명되고

있다(배희옥·김유경, 2009).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혁신적인 교육과정 개발과 함께 차등 없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장애기간 등 여성장애인의 장애관련 특성들이 민감하게 고려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장애기간이 짧을수록 취업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 점은 장애발생 이후 신체적 재활과 함께 직업 재활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자칫 재활기간 중에 반복된 취업 실패가 무력감과 절망으로 이어지기 전에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고용지원서비스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단순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수를 넘어 전문 자격증 취득 및 직업 경력 유지와 같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들이 도입되어야 한다. 최근 경직된 노동시장 내에서 취업 수요가 증가하는 직종들을 파악하고, 틈새시장을 공략함으로써 유망한 직종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교육비 지원을 통해 민간영역의 직무 훈련기관들이 여성장애인의 취업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가구주인 여성장애인의 경우, 직무 훈련 후, 보다 안정적인 직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구주인 여성장애인의 취업 가능성이 가구원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비수급자에 비해 취업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고정수입원이 생길 경우 기초생활수급 혜택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은 직장에 의존하는 리스크를 감내하기보다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편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자녀의 양육과 생계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가정의 역할을 담당하는 여성장애인인 경우 이러한 절박감은 더욱 심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지원에 의존을 하는 여성장애인가족은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더욱 높기 때문에 직무훈련 후 보다 안정적인 직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장애기간이 긴 경우 취업의지를 높일 수 있는 동기강화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장애발생기간은 취업은 물론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장애기간이 짧을수록 임금수준이 높다는 점은 장애발생기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의 장애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제약들을 경험하면서 취업의지나 동기가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곧 취업성과와 취업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변수들 내에서 연구모형을 설정했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노동시장의 공급적 측면과 수요적 측면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연구결과를 제시하는데 있어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향후 여성장애인의 취업과 임금을 결정하는 요인에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고 여겨지므로, 이를 고려한 후속연구가 진행되길 바란다. 더불어 여성장애인의 온전한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장애인의 취업성과와 취업유지 요인들이 보다 포괄적으로 규명되고, 취업의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길 제안한다.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생애 발달 주기에 따라 성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을 고려한 취업지원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고용 활성화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정빈은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어버너-삼페인)에서 MSW,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남서울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인복지 실천과 장애인복지이며, 현재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련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mail: yjb@nsu.ac.kr)

## 참고문헌

---

- 강동욱(2003). 한국의 장애인 노동시장 구조 분석.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경산.
- 강동욱(2004). 장애인의 경제활동실태와 향후 정책적 개선방안: 장애정도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0(3), pp.145-171.
- 강동욱(2006). 장애인고용과 사회복지. 파주: 한국학술정보.
- 강필수, 이정주(2010).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20(1), pp.179-206.
- 곽지영(2010). 장애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및 유지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20(1), pp.79-104.
- 곽지영, 신은경(2006). 국민기초수급대상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실태 및 영향요인 분석. *장애와 고용*, 16(2), pp.5-26.
- 김기태, 박병현, 강철희, 이성규, 이경희(1999). 여성장애인 취업 욕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37, pp.33-63.
- 김성미, 심인선(2007). 여성장애인의 모성경험 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여성연구*, 2007(1), pp.73-107.
- 김성희(2010). 장애인의 취업 및 임금결정요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서울.
- 김안나(2007). 유럽연합(EU) 사회적 배제 개념의 한국적 적용가능성 연구: 사회적 배제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25(1), pp.351-379.
- 김영미(2005). 기능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김정아(2013). 여성장애인의 취업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경산.
- 김정아, 나운환, 김지민(2013). 여성장애인의 취업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2(4), pp.321-338.
- 김호진, 최종철, 양수정(2013). 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권선진(1996).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와 특성. 장애인구 대상별 특성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권유경(1998). 한국 장애인의 피고용여부와 월 임금수준 결정요인.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류정진(2005). 장애인 취업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경산.
- 류정진, 나운환(2006). 장애인 취업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0(2), pp.167-193.
- 문혜숙(2003). 여성장애인의 문제와 지원방안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12, pp.205-230.
- 민경희(1993).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의 문제점과 고용활성화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박성준(1998). 구직형태의 동태적 분석과 고용대책.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 박수경(1999). 산재장애인의 재취업실태와 영향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37, pp.67-88.
- 박자경(2007). 여성 장애인 경제활동 활성화 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박자경(2008). 여성장애인 경제활동 참여요인 분석. 장애와 고용, 18(1), pp.27-51.
- 보건복지부(2013). 201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배화옥, 김유경(2009).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실증분석. 보건사회연구, 29(2), pp.55-76.
- 백은령(2007). 여성장애노인의 특성과 복지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총신대논총, 27, pp.114-146.
- 백은령, 오혜경, 전동일(2007). 여성장애인의 취업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연구, 17(1), pp.223-248.
- 변용찬, 이정선(2005). 취업장애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인 고용, 55(1), pp.153-171.
- 신은경, 곽지영(2008). 지체장애여성의 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가족기능의 매개효과 검증. 사회보장연구, 24(1), pp.259-281.
- 석재은, 김가을, 김경휘(2008). 장애인복지 공공지출의 성불평등 영향 분석.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성효용, 김민경(2003). 여성의 미취업탈출요인에 대한 연구: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65, pp.117-148.
- 오세란(2008). 장애인의 취업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4, pp.255-275.
- 오혜경(1998).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지위와 직업재활을 위한 정책적 제언. 장애인 고용, 29, pp.25-37.

- 오혜경(2002).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실태 및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황과 복지*, 13, pp.113-146.
- 오혜경(2006). 여성장애인의 차별실태와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복지대책. *가톨릭대학교 성평등연구*, 2, pp.69-100.
- 오혜경(2010). 여성장애인의 자본실태에 관한 논의: 경제·직업활동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리뷰, 15, pp.53-82.
- 유명화, 엄미선(2007).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와 사회적 지원. *재활복지*, 11(2), pp.131-157.
- 유동철(2000). 여성지체장애인에 대한 이중차별 분석: 고용과 임금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15, pp.73-108.
- 유동철(2000b). 장애인의 직업훈련이 취업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42, pp.290-313.
- 유동철(2002). 장애인 실업의 원인: 생산성 또는 차별. *한국사회복지학*, 48, pp.333-358.
- 윤성호(2005). 노동빈민의 사회적 배제가 빈곤경험에 미치는 영향. 제6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 이병화(2006). 직업적응훈련이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비스 제공유형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 이선우(1997).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분석: 프로빗을 이용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33, pp.287-313.
- 이선우(2001). 장애인의 경제활동유형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Multinomial Logit(다항로짓)을 이용한 분석. *사회복지연구*, 18, pp.113-135.
- 이성규, 김상희(2003). 정신장애인 직업재활모델과 직업평가: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3, pp.287-313.
- 이은미(2006). 여성지체장애인의 구직 및 직업유지 과정에 대한 경험 연구. *장애와 고용*, 16(1), pp.67-92.
- 이은미(2008). 장애를 가진 직장여성의 여성으로서의 경험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7(2), pp.147-190.
- 이은미, 백은령(2006). 중도지체장애여성의 직업활동에 대한 가족 역할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pp.61-86.

- 이원호(2006). 사회적 배제의 측정과 빈곤현상의 공간적 패턴: 서울시의 사례연구. *지리학 연구*, 40(3), pp.367-379.
- 이정호(2002). 근로복지 장애인 임금수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 이재서, 백은령(2008). 여성장애근로자의 특성과 임금 결정요인. *장애와 고용*, 18(1), pp.93-109.
- 이준상(2008).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의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18(2), pp.57-82.
- 이형열(2007). 장애유형별 취업근로자의 개인적 특성, 직업관련, 직업만족이 직업유지 기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32, pp.109-134.
- 어수봉(1996). 한국 장애인노동시장분석. *한국노동경제연구*, 19(1), pp.69-100.
- 장지연, 호정화(2001). 여성 미취업자의 취업의사와 실업탈출과정: 미취업기간 탈출률의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5(4), pp.159-188.
- 장현(2005). 장애인의 임금 및 취업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논문집*, 26, pp.195-211.
- 전이상(2002). 장애인 취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광주.
- 전리상(2006). 장애인 취업의 결정요인. *파주: 한국학술정보*.
- 정병오(2010). 여성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복지행정논총*, 20(2), pp.143-174.
- 조상미, 김지나, 조정화(2010). 취업장애인의 임금 결정 요인. *장애와 고용*, 20(3), pp.75-96.
- 최복천(2011). 여성장애인이 겪는 임신, 출산, 양육 어려움에 대한 질적 연구. *중복·지체 부자유교육*, 54(4), pp.323-347.
- 통계청(2012). 2011 사회조사보고서.
- 한국노동연구원(2003). 여성의 직업선택과 직업구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3). 2013 장애인통계.
- 황수경(2003). 장애인·비장애인의 취업확률 격차와 장애효과. *노동정책연구*, 3(1), pp.141-169.
- 황아윤(2007). 여성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진입 확대 방안: 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 현호석(2002). 여성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연구. *조사연구*, 2, pp.1-115.
- 홍석준, 성정현(2003). 여성 장애인의 정체성과 인권: 공동체로서의 집단정체성 구축과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42, pp.47-83.

- Atkinson, R. & Davoudi, S. (2000). The Concept of Social Exclusion in the European Union: Context, Development and Possibilities.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38(3), pp.427-448.
- Baldwin, M. & Johnson, W. G. (1994). Labor Market Discrimination against Me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Human Resources*, 29(1), pp.1-19.
- Becker, G. S. (1971). *The Economics of Discrimination*. 2n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lackwell, T., Leierer, S. J., Haupt, S., & Kampitsis, A. (2003). Predictor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Return-to-Work Out comes in Workers' Compensation. *Rehabilitation Counselling Bulletin*, 46(2), pp.108-114.
- Butterfield, T. M. & Ramseur, J. H. (2004). Research and Case Study Findings in the Area of Workplace Accommodations Including Provisions for Assistive Technology: A Literature Review. *Technology and Disability*, 16, pp.201-210.
- Davis, L. J. (1997). *The Disability Studies Reader*. NY : Routledge.
- Johnson, W. G. & Lambrinos, J. (1985). Wage Discrimination against Handicapped Men and Women. *Journal of Human Resources*, 20(2), pp.264-277.
- Lewis, G. B & Allee. C. L. (1992). The Impact of Disabilities on Federal Career Succes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2(4), pp.389-397.
- Melin, R. & Fugal-Meyer, A. R. (2003). On Prediction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Outcome at a Swedish Employ ability Institute. *Journal of Rehabilitation Medicine*, 35(6), pp.284-289.
- O'Hara, B. (2004). Twice Penalized: Employment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Disability Policy Studies*, 15(1), pp.27-34.
- Pfeiffer, D. (1991). The Influence of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Disabled People on Their Employment Status and Income. *Disability, Handicap and Society*, 6(2), pp.103-114.
- Spence, A. M. (1974). *Market Signaling: Informational Transfer in Hiring and Related Screening Process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An Analysis of Determinants of Employment and Wage of Disabled Women

**Yang, Jung Bin**

(Namseoul University)

---

Women with disability have been disadvantaged in economic participation. They face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based on both gender and disability. The analysis for this paper was based on the data from 『2013 Survey on the Current Conditions of Economic Activiti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a sample of 1,571(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age of 15~60) out of 8,000 participants, major determinants of employment and wage of disabled women were statistically identified with multiple regression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study results can help to design a specific range of actions and to promote inclusion of disabled women in labor market. The evidence suggests that employment of the disabled women is affected by the education level, the type, severity and duration of disability, the type of householder and recipien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The results also indicate that the level of wage is influenced by their education level, marital status, disability duration, the type of householder and recipient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According to these results, sever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as follows: build-up of educational courses to support them, development of a variety of occupations in an evolving labor market and individually tailored job training programs, provision of a system helping welfare recipients to participate in more steady occupations, and implement of motivational enforcement program to enter disabled women into labor market and maintain their job status.

---

**Keywords:** Disabled Women, Employment, Wage Level